

제주 블록체인 연관산업 탄력받나

화장품 소재·부품 플랫폼사업 정부 지원과제로 선정 올해 컨설팅 추진... 도 "투명한 화장품 유통관리 기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화장품 소재·부품 플랫폼사업'이 정부의 지원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연관산업 육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하는 '2020년 국가디지털전환사업 과제 공모'에 '블록체인과 빅데이터(이하 2B)를 기반으로 한 화장품 소재·부품 플랫폼사업'이 최종 과제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국가디지털전환사업은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디지털기술 기반의 공공분야 디지털플랫폼의 기획·구축을 지원해 민간의 새로운 비즈

니스 창출을 도모하는 공모사업이다. 2020년도 과제 공모에 총 25개 과제사업이 제안됐고 제주를 포함한 4개 기관의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2B 기반 화장품 소재·부품 플랫폼은 제주의 청정자원을 활용한 화장품에 대해 유통채널에서 판매까지 화장품 생산 전주기 모니터링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원료의 단계별 이력정보와 유통과정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공유해 관리의 탈중앙화 및 소재의 신뢰성 향상이 가능하며, 이렇게 관리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맞춤형 화장품을 생산하고 생산된 빅데이터를 공유하면서 플랫폼 확장이 가능하게 된다.

제주도는 투명한 화장품 유통이력

관리 플랫폼이 구축되고 활성화되면 짝퉁(가짜상표) 화장품의 문제 해결과 화장품의 원료관리 체계화로 각종 소재 및 부품을 활용하는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제주도는 올해 1차년도 2억5000만원(국비) 규모의 전문컨설팅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2차년도 사업비 30억원(국비) 지원으로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시 원도심에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의 입주공간인 '혁신창업거점 W360'을 조성했다. 이 곳에는 현재 블록체인 관련 3개사 등 7개 기업이 입주해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앞으로도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신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봄나물 캐는 아낙네. 원원한 봄 날씨를 보인 25일 제주시 이호동 한 습지에서 아낙네들이 봄나물인 미나리를 채취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2공항 갈등 연속토론회로 풀릴까

갈등분석 용역서 최종 제시 특위, 이번주 추진계획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의뢰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영향분석 용역이 마무리된 가운데 갈등해소 방안으로 쟁점 해소를 위한 연속토론회 개최가 최종 제시됐다.

25일 제주시의회에 따르면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특위는 이번주중 회의 열고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갈등해소방안 추진계획 채택의 건과 활동계획 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최근 제출된 최종보고서에서 용역진은 갈등해소방안으로 사실관계 갈등(쟁점 해소)을 선차적으로 해소하는 구조화된 연속토론회를 제안했다. 내실있는 연속토론회 운영을 위해 2~3차례 사전 비공개토론회를 진행

하고, 사전토론회를 통해 걸러진 핵심 쟁점 위주의 연속토론회를 5~6회 실시하는 것이다.

용역진은 연속토론회 주차별 의제로 바람직한 제주 미래상(1차), 현재 제주공항 확충 실효성(2차), 제2공항 성상을 입지 타당성(3차), 제2공항 추진 주민 피해(4차), 종합 토의(5~6차)를 제시했다.

다만 특위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당분간 토론회 개최가 힘들 것으로 보고, 활동기간 연장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eijoh@ihalla.com

“소소하지만 시민 위한 시책 ‘소시민’으로”

서귀포시, 시민밀집 분야 '1부서 1민생시책' 추진 드론 이용한 농약 방제에 청소년 희망택시 사업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이 멈춰 서고, 시민들의 삶도 어느때보다 팍팍해진 가운데 서귀포시가 소소하지만 시민 중심의 민생시책인 일명 ‘소시민’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읍면동을 포함한 전 부서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3개 분야(시민소득 지원, 생활불편 해소, 생활속 현장 행정) 관련 시책을 1건씩 발굴, 올해 총 54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대표적인 시책으로 농촌지역에서 부족한 농가 일손을 돕고, 직접 살포시 우려되는 농약피해 예방을 위해 드론을 이용한 농약방제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주민과의 대화에서 시민간의 사랑을 반영해 올해 처음 도입했는데, 총 8000만원을 투입해 900ha에 대해 ha당 9만원의 방제 대행비를 지원하게 된다. 관행적인 농약 살포시 한 사람이 하루 1ha를 방제하는데 반해 드론 이용시 3.3ha가 가능해 농가의 일손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취약계층 고등학생의 야간자율학습 후 안전한 귀가를 돕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청소년 희망택시 사업'도 소시민 사업에 포함돼 학교가 개학하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 사업 역시 작년 시정공감 토크콘서트에서 한 시민이 건의하면서 처음 도입했는데, 올해 9000만원을 투입해 주민등록상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고등학생 400여명에게 연간 최대 16만8000원(분기별로 4만2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올 1월 보조사업자인 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와 세부 운영협약도 체결했다.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없는 안덕면이 집없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자원과 협업체를 추진하는 '안덕 사랑의 집 프로젝트'도 눈에 띈다. 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찾아 리모델링해 3년간 취약계층에 무료 임대하는데, 2018년 12월 사랑의 집 1호 입주를 시작으로 작년까지 모두 3호까지 입주가 이뤄졌다. 안덕면은 올해 화순리와 동광리에서 사랑의 집을 선보이기 위해 추진중이다.

농경지 내에 묘지가 있어 토지이용에 제약이 크지만 공시지가가 주변토지와 동일해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공시지가 산정방식을 개

선, 주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시책도 추진중이다. 또 >후기 고령으로 진입하는 75세 도래자의 전수조사를 통한 단계별 지원체계도 >경로당 건강장비 등 수리순회 서비스 >야간 안전취약지역에 그림자조명(로고젝터) 설치사업 >소상공인 대상 낮은 간판고체지원 사업 >예술인들의 현장 재능기부를 통한 '우리 마을 진동산 노년학교' 사업 등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이들 민생시책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연말에는 '서귀포시민이 뽑은 소시민 7선'을 온·오프라인 심사로 뽑을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는 소시민 정책과 별도로 코로나19로 심각한 민생위기를 극복 등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하기 위한 '경제위기 극복 주요업무 추진계획'도 수립중이다.

양영일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은 "양영준 시장이 취임사에서 '감동은 아주 작은 것, 소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작은 감동으로 큰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진심이런 따뜻한 행정을 실천해 보겠다'고 밝혔다"며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시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깨끗한 축산농가 신청을” 서귀포시, 인증농가 확대

서귀포시가 악취없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체계를 구축을 위한 '깨끗한 축산농장(CLF·Clean Livestock Farm)' 신청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은 농가가 자발적으로 가축의 사양관리, 주변경관과의 조화, 신속·적정한 가축분뇨의 처리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 발생을 막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환경 조성을 실천하는 농장을 말한다.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2603개소, 제주에서는 106개소가 인증받았다.



서귀포시가 자발적으로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한 농가를 대상으로 '깨끗한 축산농가' 인증 신청을 받고 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총 37개소 신청 대상 축종은 소·돼지·닭·오리(한우 18, 양돈 16, 양계 3개소)가 인증받았고, 올해는 총 50개소로 인증농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25년까지 총 농가 100개소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알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창립 25주년(3월 9일)을 맞아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제주도개발공사, 제주 미래 선도하는 도민의 행복파트너' 기획기사는 제주개발공사의 지원으로 이뤄졌습니다.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1포(100~500평) 사용

▶ 잡초의 경감 ▶ N2O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높은 저장성 ▶ 페르카 ▶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강력한 라이효과 ▶ 뿌리혹병의 경감

취급 품목 아미노산, 휴믹산, 풀빅산, 해조박, 유황제품 (50~100)평 사용 100%발효 : 유박, 퇴비제품

관주염면 시비용 칼슘제, 색상, 당도, 뿌리발근, 생육촉진, 역제제, 광합성지원제품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당근·감자·양파·무우 농가에 희소식
고품질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하하농법이 최선이다

썰파고 · 나노 유향으로 만든 320여가지 농약성분이 없으며 살균·살충 효과가 있다

V패스 · 양자에너지와 히트류 생분해 복합제제로 세균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물의 회복과 면역력 증강으로 식물 무성세포의 복원을 촉진시킴

썰파고와 V패스 사용법

배추·양배추 브로컬리·양파 · 소독 : 정식전 묘중침지(썰파고+V패스 12.5말 희석)
 · 1차 살포 : 파종 10~15일후 썰파고+V패스 살포
 · 2차 살포 : 11월 찬바람이 불면 살포

마늘 · 파종전 침지(썰파고+V패스 12.5말 희석)
 · 1차 살포 : 멀칭전 살포 · 2차 살포 : 11월 찬바람이 불면 살포
 · 3차 살포 : 2월말경 해빙기가 되면 살포

감자·당근·무우 · 1차 살포 : 파종후 10~15cm 씩이 나오면 살포
 · 2차 살포 : 11월 초 찬바람이 불면 살포

※ 당근·감자·양파 농가에서 농약없이 오직 **썰파고**와 **V패스**로 재배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음

곰팡이감귤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